

## 책읽는 병원 :

– 삼성제일병원 의학도서실의 “나누는 책소식” –



이성욱\*

삼성제일병원 의학도서실은 의료직을 위한 자료실로 소장 자료는 의학 관련 자료이고, 이용자도 의사, 간호사, 연구원으로 주로 임상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논문을 쓸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직원에게 상호대차 서비스나 정보검색 서비스, 신문과 원두커피, 컴퓨터, 복사기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개방되어 있지만, 소설류 등의 읽을거리가 없어 행정 직원이나 간호조무사 등의 직원들은 도서실이란 곳이 의료직만을 위한 “특별한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의학도서실이라는 한계를 넘어야 하는 담당 사서의 벽이기도 하여 도서실 발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책읽는 병원”을 시작하였다.

2003년 7월 28일부터 “나누는 책소식”이란 내용으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내 정보망과 도서실 게시판, 직원 식당 앞 게시판에 뉴스레터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다. 주된 목적은 읽어서 좋았던 책을 함께 공유하는 것과 소장 자료와는 별개로 직원들과의 연계를 확장하기 위한 도서관 마케팅(Library Marketing)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현재는 28회 원고를 준비하고 있고 임직원이 추천을 할 때에는 문화상품권(2만원)과 보관용으로 게시된 내용을 칼라 전용지에 깨끗이 출력한 출력물, 도서실에서 자체 제작한 책갈피를 원고료로 주고 있다. 원고모집을 위한 홍보는 “10억 만들기 열풍! 하나의 진실은 작은 돈이라도 아끼는 것이라고 하던데...”라는 문구로 문화상품권을 원고료로 받을 수 있음을 광고 전단지처럼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월 2회 사서와 임직원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서가 추천을 할 때에는 공정성과 대중성을 위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 각 분야의 베스트셀러 자료를 기초로 TV, 신문 등의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문, 사회, 경제서 등을 책표지, 저자 소개, 책소개, 머리말 등으로 구성하여 A4 한 장으로 작성하고, 임직원 추천은 주제와 종류를 망라하여 추천을 받고 책표지, 저자소개, 책소개, 머리말, 독후감, 추천인 사진 등

\* 삼성제일병원 의학도서실, leeso.lee@samsung.com

A4 두 장으로 작성하여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라는 부제목과 함께 뉴스레터의 형식으로 간행하고 있다. 추천인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삽입하고 원고료는 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다. 뉴스레터의 형식은 사서 추천과 임직원 추천의 경우로 나누어 추천서에 맞는 예쁜 그림과 서체 등을 이용하되 형식은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책을 소개하는 부분은 저자소개와 객관적인 서평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각종 미디어에서 나온 서평을 읽어 재정리하거나 사서가 직접 읽고 서평을 쓰기도 하여, 내용이 지루해지지 않게 한 장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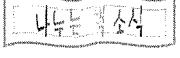
임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의 사서와 임직원이 교대로 한 달에 두 번씩 간행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 현재는 임직원 추천은 원고가 접수되는 대로 소개하고 한 달에 두 번이라는 간행빈도는 준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본인의 사진과 함께 자신의 글이 공용의 공간에 게시되는 것에 만족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사진이 게재되는 것에 망설임이 있는 추천인이 있어 내용과 부합되는 그림이나 책표지 등으로 사진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후감 분량을 한장을 채우지 않고 제출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 사서가 수정을 하여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회차	직 종	서 명	저 자
1	사서	칭찬은 고래도 좀주게 한다	켄 블랜차드
2	의사	인생은 예행연습 없는 마라톤이야	이영호
3	사서	파페포모 메모리즈	심승현
4	간호사	염소	김성동
5	사서	메모의 기술	사카토 켄지
6	의사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신경숙
7	사서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	앤드 앤드루스
8	의사	펼떡이는 물고기처럼	스티븐 C. 런던
9	사서	조선의 뒷골목 풍경	강명관
10	행정직	풍금새	백기문
11	사서	나는 박물관에서 인류의 꿈을 보았다.	권삼윤
12	간호사	단순하게 살이라	베르너 티키 퀴스텐 마허
13	행정직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14	사서	TV 동화 행복한 세상	KBS
15	사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텃니한
16	사서	아인슈타인의 유쾌한 편지함	앨리스 캘러프라이스
17	간호사	아침형 인간	사이소히로시
18	사서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고미숙
19	연구원	더불어 숲	신영복
20	간호사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채프만
21	사서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김용석, 이재민, 표정훈 역음
22	기사	명화로 읽는 서양미술사	권용준
23	기사	짧은 동학 긴 생각	이규경
24	행정직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25	의사	열흘간의 만남	신경림, 오현 스님
26	조무사	단 하나의 보물	가토 히로미
27	공급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김홍식

2003년 7월 28일 제1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으로 “나누는 책소식”을 시작하여 현재 27회가 간행되었다.(추천목록은〈표〉참조) 그 중 사서 추천은 12회이며, 임직원 추천은 의사 4명,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연구원 1명, 의료기사 1명, 행정직원 3명, 기타(공급실) 직원 1명으로 총 15명이 경영경제, 인문사회, 소설류, 에세이,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였다.

“나누는 책소식”은 여러 직종으로 구성된 병원에서 모든 직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고, 이와 함께 도서실에서 모든 직원이 휴식과 컴퓨터나 복사기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참새 방앗간이다”라고 안내하여 의학 자료이용 이외의 이용자, 교대근무 시간이나 빈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휴식을 위한 이용자가 증가하였으며, 2004년 6월에는 칭찬부서로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

앞으로의 계획은 50회 기념호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며, 임직원 추천으로 진행되어 경영경제서, 자기계발서, 인문사회, 에세이 등이 많은 반면 과학기술 분야는 저조한 주제상의 치우침에 대한 해결방안과 다양한 직종의 더 많은 참여를 모색 중이다. 

 <p>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p> <p><b>서 드 브리어 국립언론</b></p> <p>나누는 책소식</p> <p>제 29호 2004년 7월 28일</p> <p>국립언론부 책문화사업</p> <p>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p> <p>나누는 책소식</p> <p>제 18호 2004년 1월 26일</p> <p>교육연구부 책문화사업</p> <p>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p> <p>나누는 책소식</p> <p>제 18호 2004년 1월 26일</p> <p>교육연구부 책문화사업</p>
<p><b>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b></p> <p><b>나누는 책소식</b></p> <p>제 29호 2004년 7월 28일</p> <p>국립언론부 책문화사업</p> <p>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p> <p>나누는 책소식</p> <p>제 18호 2004년 1월 26일</p> <p>교육연구부 책문화사업</p>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나누는 책소식**

제 29호 2004년 7월 28일

국립언론부 책문화사업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나누는 책소식

제 18호 2004년 1월 26일

교육연구부 책문화사업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나누는 책소식**

제 18호 2004년 1월 26일

교육연구부 책문화사업

▲ 사서추천

▲ 임직원추천